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 또다시 출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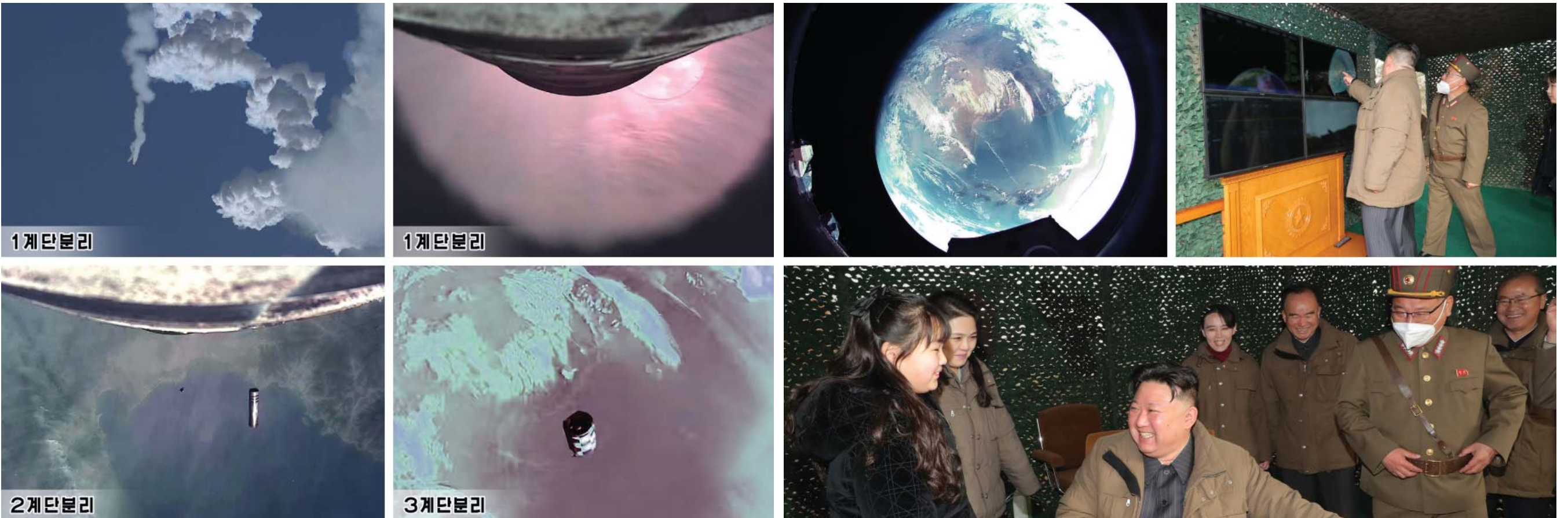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을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힘의 실체로, 핵전쟁참화를 방지하고 적의 각양각태의 위험 천만한 침략적가능성들을 억제 하는 강력한 역량으로,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으로 그 위력을 끊임없이, 멈춤없이 계속 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 은 가속적으로 급진전되어가고 있는 전략적로선과 방침에 의하 여 나라의 자위적핵전쟁억제력 (2면으로 계속)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 또다시 출현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2023년 4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가 자기의 출현을 세상에 알렸다.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시험발사는 대출력고체연료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각이한 기능성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간지분리시동방식으로 미사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발사현장에서 발사전 준비공정을 직접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공화국전략무력발전사에 다시 한번 중대한 사변적의의를 기록하게 될 중요한 전략무기시험발사를 앞둔 발사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위력적핵공격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우리 국가의 핵전쟁억제력을 보란듯이 과시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불타는 의지로 뚫어번졌다.

시험발사준비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 승인하시자 장창해대장이 시험발사임무를 맡은 미사일총국 제2분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내리였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슬찬 불줄기가 거세차게 내뿜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힘있

게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올랐다.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km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이 보다 군사적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공격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국가핵무력건설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될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시험발사를 지도하시면서 경이적인 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날로 더욱 고

도화되고있는 우리 국방기술력의 막강한 잠재력과 현실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하고 무력강화목표달성을 위한 드팀없는 결단과 실천능력을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날로 약화되고있는 조선반도안전환경과 전망적인 군사적위협들에 대처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신진적이며 강위력한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다그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것이며 핵반격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것이라고 그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담할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적대응투쟁방침을 자위력강화발전의 실천적성공과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국방과학력량이 견지하여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공

화국핵전략무력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고질적인 침략적정책과 위협적인 군사적준동으로 조선반도의 환경을 위태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방해하고있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것이며 반드시 불가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의 성공은 공화국핵전략무력과 그 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미사일과학기술집단이 조선로동당의 전략적지도를 관철함에 항상 철저히 완벽하며 그 언젠는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수 있게 준비되어가고있음을 실증해준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획기적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성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획기적강화에 특출한 공헌을 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성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이며 더욱 진화되고 강위력한 수단들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이번

에 또다시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해 내는데 크게 기여하여 공화국전략무력의 실상을 증빙하고 영원한 압승을 확신케 하며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의 절대적강세를 다시한번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해당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중요관계자 10여명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것

을 친히 제의하시였다.

또한 미사일총국의 해당 연구소 부소장인 한금복대좌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국방과학연구부

문의 전체 성원들은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줄기찬 발전을 이룩해가는 숭고한 사명감에 영원히 충실할것을 맹약하며 보다 비약적인 무기개발목표를 향해 더욱 기세차게 총돌입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8기 제 6차 확대회의 진행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가증되는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조치들이 강력히 실천되어가고있는 우리 무력발전의 전환기에 또다시 중대한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8기 제 6차 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8기 제 6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8기 제 6차 확대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침략적인 군사정책과 행위들이 위협적인 실체로 부상하고있는 현 조선반도안전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준비를 더욱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군사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최근 들어 《평양절령》과 《참수작전》이라는 호전적인 망언들까지 로팔적으로 흘리며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

한 적들은 련일 반공화국대결망발과 공격성군사행위들을 의도적으로 고취하며 자기들의 불순한 침략정체를 행동으로 명백히 보여주었다.

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침략전쟁준비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현정세를 심도있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의

군사적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행동으로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기하였으며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행동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8기 제 6차 확대회의에서 토의된 군사적대책들은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더욱 선명히 하고 굳건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제고를 위한 무력강화행정에서 또 한번의 큰걸음을 내짚은 사변적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9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93억 9 787만 390푼에 달한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111돛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13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향가》

1.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물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 시 던 말 씀  
아 키 에 생 생 해
2.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되 노 는 모 양  
아 눈 에 삼 삼 해
3.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 수 없네  
광복의 그날  
그리운 산천



만 경 대 의 봄

만경대에 4월의 따사로운 봄빛이 넘쳐흐른다. 진달래꽃, 살구꽃을 비롯한 천만송이 꽃들이 산천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온갖 새들도 봄을 노래하며 고운 청을 들린다.

부드러운 바람결에 솔솔향기가 가득히 실려오는 만경봉을 감돌아 대동강의 푸른 물결도 유유히 흐르고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경치이다. 천하의 봄경치가 여기에 다 모였는가싶다. 그래서 예로부터 만경대의 으뜸가는 봄경치를 칭미하여 《만경상춘》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이 더욱더 아름다운 봄으로, 온 세상이 다 아는 봄으로 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 민족과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시었기 때문이다.

이 행성에 민족은 많아도 우리 민족처럼 봄을 그렇게도 사랑해온 민족은 없다고 말할 수도 과언이 아니다.

봄을 류달리 사랑해온 조선민족이기에 꿈과 희망을 봄에 담아 노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라없던 그 시절 우리 겨레는 봄의 환희를 느낄 수 없었다. 산과 들에 꽃이 피는 봄이 와도 겨레의 마음속엔 언제나 차디찬 겨울이었다.

하기에 이 땅의 한 시인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해냈었다.

자연의 봄은 와도 인생의 봄은 없었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봄빛이 흘러든 것은 만경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그날부터였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그

날이 있어 땅극노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주적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백두밀립과 만주광야에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이시던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경대의 봄이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력사의 땅 만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도 만경대의 봄에 대한 이야기였다.

대동강에 얼음이 풀리고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면 만경봉에 진달래가 붉게 피고 초가집 울안에도 복숭아꽃이 피곤 하였다고, 4월의 만경대는 꽃속에 묻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을 그려보시며 밀랍의 우동불가에서 깊은 감회에 젖어 《사향가》를 부르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오늘날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 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겨레가는 민족의 운명에 소생의 숨결을 부어줄 해방의 새봄을 안고 그리운 고향 만경대로 다시 돌아갈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안고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친만교섭을 달게 여기시며 항일현전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었다.

빼앗긴 나라를 기어오르되 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

쳐가신 항일대전의 그 길이 있어 비운이 드리웠던 이 땅에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봄이 찾아올 수 있었다.

암흑의 강토에 해빛이 비쳐든 그날 우리 겨레가 터친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의 감격어린 웨침은 민족운명개척의 새시대를 알리는 봄의 장쾌한 교향곡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겨레에게 해방의 봄만 가져다주시는 것이 아니었다.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도 안겨주시었다. 항일전의 나날 인민이 복잡한 새세상을 그려보시며 그리이게 행군의 일침에 한자한자 쓰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그대로 새조국건설의 기틀이 되고 인민적시책이 되었다.

봄이었던가, 생시였던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난생처음 분어받은 제방에서 농민들이 봄씨앗을 뿌리는 희한한 현상이 펼쳐지고 어제날의 막별이군이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봉건적유습과 식민지적억압과 착취, 비인간적인 처지에서 완전히 해방된 여성들의 환희가 강산에 차고넘치었고 복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가 토의되고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했던 수난 많은 아이들의 눈가에 배움의 웃음꽃이 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땅에서 난생처음 인간다운 삶, 인생의 새봄을 맞이한 이 나라 인민에게 해방 후 민족부흥의 5년간을 그 무엇보다도 바랄수 없는 《황금의 시절》이라고 노래하며 이 고마운 제도를 지켜 미제침략자들의 결사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용감히 싸

웠던 것이다. 《수령님이 주신 땅에 봄이 오면 세뿌리고 단풍드는 가을이면 오희백과 거두었네》라고 노래하며 인민들은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었다.

공화국인민들은 전후 재더미우에서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천리마를 타고 기세차게 내달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

1960년대에 벌써 남녀로소 누구나 한복소리로 부르고 또 부른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꽃피워주시는 인민의 락원, 봄의 화원에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이 행하는 행로를 누려가는 인민의 다함없는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이었다.

만경대의 봄이 있어 이 땅에는 위대한 계승의 력사가 출기차게 펼쳐지게 되었다.

해방 후 새 조국건설로 매우 분망하신 속에서도 만경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린시절의 장군님께 만경대는 경치만 보고 아름다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운 만경대사람들의 마음은 더 아름다웠다 하시면서 만경대사람들의 뜻을 이어서 나라를 위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백두의 행군길을 꽃이 이어가시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미증유의 기적과 변혁을 펼치시며 사회주의강국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

의 사상을 그대로 지니시고 위민현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어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위대한 강국의 봄을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하제일강국건설의 용지를 지니시고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최강의 핵보유국, 초대강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세우주시었다.

철세위인의 탁월한 령도 밑에 지난 10여년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도 놀랄만한 성과와 전범들이 이룩되었다.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려명거리, 송화거리를 비롯하여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자립의 경제태도가 더욱 굳건히 다져졌으며 세월을 주름잡으며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인민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의 봄과 더불어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잡이 새겨보면서 더욱 위황관란할 래일을 보고있다.

만경대의 봄.

태양민족의 궁지로운 어제와 오늘, 천만년 밝은 앞날을 안아올린 환희의 이 봄을 겨레는 영원히 사랑하리라. 영원히 만경대의 봄을 안고 살리라.

본사기자 김 영 범

어느 계절이나 다 특색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다운 계절은 아마 화창한 4월일 것이다.

유난히 맑고 푸른 하늘에 고운 새들이 날아오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꽃향기 가득히 넘쳐흐르는 속에 환희에 넘쳐 인민이 부르는 경축의 노래 소리가 온 나라 강산에 울려 퍼진다.

이 강산에 꽃이 피는 4월 15일 밝은 해빛 넘쳐나는 4월 15일 태양절 태양절 우리 민족 태양절 수령님 그 사랑 길이길이 노래하세...

평양326전선종합공장의 한 일군은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한평생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인민들에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속에 차넘칩니다. 정말이지 온갖 뜻 만발하는 4월의 봄명절이야말로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준 경사로운 명절입니다.》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준 경사로운 명절!

정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이 있어 이 나라 인민이 누리는 값없는 존엄과 영예, 모든 행복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는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된 세상에 유일무이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고 영웅, 박사, 인민교원, 인민예술가, 한자기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인민적인 보건제도 등 오직 이 땅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인민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만복의 귀중한 토대들이다. 고난과 시련은 자신께서, 기쁨과 행복은 인민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세월의 온갖 눈비를 다 맞으시며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평양으로부터 저 멀리 북변의 외진 산골마을들과 분계현의 마을들, 공장, 농촌, 립산과 어촌, 학교들과 병원, 합숙과 수천척지하막장... 온 나라 방방곡곡 인민이 있는 곳 어디에나 어버이수령님 남긴 사랑의 자욱함이 있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인민의 기쁨을 꽃피우시려 끊임없이 이어가신 수령님의 현신의 로고가 있어 이 나라 인민 누구나 즐겨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태어날 수 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오늘 우리 조국의 높은 존엄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없는 삶,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결부되어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태양민족의 영원한 명절로 되게 하여주시는데도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후손들에게 길이 빛내어나가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웠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떠나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영예와 행복, 희망찬 래일을 생각할수 없기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일터와 가정들에서 꽃송이와 꽃바구니를 안고 만수대인덕으로 물결쳐오른다.

그 물결속에는 한해전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인민의 리상거리로 눈부시게 펼쳐진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시주래구에 새집들이한 행복의 주인공들도 있다.

어찌 만수대인덕뿐이었는가. 은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거리들과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전변된 삼지천을 비롯하여 이 땅 그 어디서나 고마울만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었기에 그리고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인민의 행복과 기쁨은 나날이 커가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세세년년 울려 퍼질 것이다.

김 순 정

만복을 꽃피워준 명절



# 인민이 안겨사는 행복의 보금자리

절세위인의 유서깊은 저택자리에 온 세상이 부러워할 황홀한 다락식주객이 일떠선 때로부터 벌써 1년이 되어온다.

지금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 어느 나라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호화주택의 주인이 된 커다란 기쁨과 환희를 안고 각계층 군중이 터치던 격정과 눈물의 만세소리가.

세상에 주택은 많아도 한 나라의 수령이 사시던 저택자리에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선 전례는 없다. 크고 번쩍거리는 주택은 있어도 근교하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행복의 웃음꽃 피우는 진정한 보금자리, 아름다운 주택은 없다.

4월의 봄명절을 맞은 뜻깊은 이 시각 넘쳐나는 인민의 웃음과 행복으로 피어나는 꽃들도 더없이 유정함을 자아내는 여기 보통강반에서 사람들은 유서깊은 저택자리에 솟은 인민의 호화주택을 바라보며 가슴에 끓여오르는 격정 다시금 세상에 목격되려 한다.

## 1

《이젠 반세기가 넘었지만 마치 어제일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때 저희들은 두달동안 밤잠도 없고 만든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들고 수령님께서 계시는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던 종단 말입니까. 현관문이 쏘아서 꽃바구니를 들어갈수가 없었습니다. 부관아저씨까지 동원되어 예를 썼지만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현관문이 딱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꽃바구니를 가지고 왔는지?>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웃음이 들려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현관문으로 나오셔서 꽃바구니를 보아주시고 우리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평양량광중학교의 학생이었던 교령의 한 녀성이 오늘도 격정에 겨워 추억하는 이야기이다. 듣는 사람마다 믿기 어려워한다. 10여명의 학생들이 가지고 간 꽃바구니가 크면 얼마나 크랴. 그런데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가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받들어오는 절세위인의 저택으로 꽃바구니가 들어가지 못했다니 그의 저택은 그리도 작고 소박했던 말인가.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인 주체60(1971)년 4월 15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선아훈비제 탄생일에 있었던 일이다.

한없이 겸허하고 소박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품모를 보여주는 그 유서깊은 저택자리에 온들은 인민의 호화주택이, 그 이름도 아름다운 경무동이 솟아올랐다.

지난해 4월 황홀한 새 주택이 완공의 모습을 펼친 현지를 또다시 찾았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체취와 발자취가 어디라 없이 어리여있는 이곳을 돌아보시며 원래 이 지구에서 살다가 철거된 세대는 하나도 없다고, 철거되었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뿐이라고,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 세상에 없는 호화주택을 지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시겠구나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철거된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

은 나라의 남너로소모두에게 있어서 아버지수령님은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자애로운 아버지였고 운명의 태양이시었다. 그이께서 사시던 소박한 저택을 소중히 보관하고 김일성민족의 천만년세월과 더불어 길이 전해가고싶은것이 이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저택자리에 일떠선 웃음넘치는 호화주택이 일떠섰으니 인민을 하늘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베푸실수 있는 극진한 사랑이고 하늘도 감복할 일이다.

돌이켜보면 일찌기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유년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간직된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을 나서신 때로부터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였던가.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백두산은 나의 정춘시절의 《집》이었다. 어린시절의 고향집 식수에 비할수 없는 많은 식물들이나와 함께 거기서 지내며 백두산의 눈비를 맞았고 오늘의 조국을 꿈꾸었다.》

향일의 나날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사향가》를 지어부르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은 하늘도 잘 보이지 않는 천고밀림의 울창한 해초는 열혈의 혁명전사들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렇게 20성상 풍찬로하시며 무장투쟁을 벌리시어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겨레에게 해방의 새봄, 자유의 새봄을 안겨주시었다.

그렇게 자신의 한몸바쳐 철성관에 올라탄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시였건만 아버지수령님께서 배방된 조국 땅에서 온동안 저택이 따로없어 아찔한 투사들과 수수한 합숙방에서 침식을 함께 하시었다.

어쨌든 혁명전사들이 해방산기슭에 수수한 저택을 마련해드리었건만 인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로동자들과 농민들,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아 위임없이 현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에 나라가 해방된 후 현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지 못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기다리시던 그 나날들에 안라까우셨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으시었다.

《지금도 내가 어릴 때의 일이 생 각됩니다.

어느날 밤 아무리 기다려도 수령님께서 들어오시지 않기때문에 부관장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이제 곧 들어가실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때부터 다시 불을 때면서 밤과 국을 덥히시는데 수령님께서 좀처럼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가릴적절했던 전쟁시기에도 아버지수령님에게는 저택이 따로 없었습니다. 산골의 수수한 농가와 동기와 집들에 자리잡았지만 낮이나 밤이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도 소중

로 그이의 속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장이 끝난 후에도 어둡고 습한 반토굴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의 거창한 사업을 명도하시었다.

세계 《최강》을 뽐내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을 타승하시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시어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전장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저택을 짓는 문제만은 엄격히 만류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 이제는 인민들이 반토굴에서 다 나와 훌륭히 일떠선 새집에 보금자리를 뚫습니다. 이제는 수령님 저택을 새로 짓는 문제를 승인해주십시오.》

그러는 일군들이 못내 안라까우신데 그러도 절절하게 읊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날의 음성.

자신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대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혁명을 해왔다고, 자신께서는 사립관이었지만 언제나 대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고, 해방후에도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새 조국건설을 하였고 전쟁시기에도 그렇게 하였다고,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 우리도 조밥을 먹고 인민들이 토굴집에서 살면 우리도 토굴집에서 살며 일하였다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은 자신의 생활준칙이라고, 동무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우리 집 설계를 한것같다고.

그렇게 부결하시었다. 집을 크게 설계한것이 결함이고 집을 화려하게 꾸리려고 한것이 잘못이라하며 한 번, 아직도 크다고, 집을 더 축소하여 설계해야 한다시며 또 한번... 이렇게 세번씩이나 더 작게 더 소박하게 수정되고 또 수정되어서 아버지수령님의 저택설계도 면이 흔들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오래동안 모르고 살아왔다. 자신께서는 크고 화려한 집보다 소박하고 아담한 집이 더 좋다고 하시며 저택설계를 몇번이나 고치도록 하시면서도 이제 평양에 소년궁전을 크게 짓기로 하는데 동무들이 그것을 설계할 때는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크고 화려하게 설계 하라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하해 같은 사랑의 세계를.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사업한 한 일교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울바자를 두른 수수한 집, 너무도 겸손한 방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웠던 그날 한 나라 수상의 저택이 이처럼 소박할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섬세함에 저도 모르게 왈락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로지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 먹이고 잘 입히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있어서 그 저택마저도 잠시나마 피로를 풀고 휴식을 하시는 곳이 아니라 종 합농사시절장이었고 식물연구소였으며 가끔연구소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인민의 궁전, 사랑의 거리들이 수놓처럼 솟아올랐던가.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저택을 떠나서 멀리 북변땅 두메산골로부터 파도세찬 어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찾아 위임없이 걸고 또 걸으시었다.

낮이나 밤이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도 소중

히 들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새 교복을 펼쳐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오랜 시간 사진도 찍어주시고 로동자들의 식당에 들리시어는 밥과 국 맛도 보아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 진정한 아침에 비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깊은 밤 눈내려도 온 나라를 돌보시며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로고에 로고를 바쳐가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사랑하는 인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 깊은 밤 한순간의 휴식마저 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길,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시우기를 인민들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였던가.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고 싶고 이방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 찬이슬 내리는데 또 어찌 가시옵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떠 갔었 습니다 ... 하루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우기를 수령님 수령님 인민들은 바라 옵니다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 이 땅에 사무치고 저 하늘에 닿고도 남으려만 아버지수령님께서 명절날, 휴식날에도, 지어 자신의 생신날에도 쉬지 못하고 언제나 바람세차고 폭양이 내리쬐이는 현지도의 길을 걸으셨으며 인민들과 함께 계시었다.

이렇게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방 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을 찾아 걸으신 길은 무려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 것과 맞먹는 144만 5 000여에 달하며 맞으신 단위는 무려 2만 600여계를 헤아린다.

위인의 높이는 쌓으신 불멸의 업적의 높이이고 위인의 영성은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영원무궁한 그 업적의 빛바람이다.

조국의 복단 온성지구로부터 분계 연선마을까지, 서해의 간척지마을로 부터 동해의 자그마한 바다마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은 길은 이렇듯 무수한 길에 닿는 뜨거운 사랑이었다.

사실상 인민이 사는 온 나라 방방곡곡은 그이의 《집》이었다.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꽃피워가는 그 《집》에서 수령님께서 출하 추동을 보내시었고 세월의 찬눈비, 세찬 비바람을 다 맞으시었다.

자애로운 아버지께서 온갖 고생 달게 여기시며 지켜주고 빛내주시고 《집》, 사회주의대가정의 불빛은 창가에서 인민들은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 2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와 인민에 대한 열사정신의 정신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인민사랑의 격사를 출기차게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자신의 온몸을 초월처럼 태우시었다.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걸으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생애를 더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다음에도 의사당을 기념궁전으로 숭엄하게 꾸리고 이곳에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었다. 금수산의사당은 수령님의 영원한 주석궁이라고 하시며 의사당에서 사업하시기를 바라는 인민들의 간절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저택이 따로없이 겸손한 집무실과 야전렬차에서 사업하시다가 순직하신 우리 장군님과 같은 고된 도덕의리인 화신, 위대한 생인은 동서고금에 없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찾아 감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시었다. 그러시느라 밤 야전렬차를 떠나실수 없었고 들추는 열차칸은 그대로 그이의 정든 《집》이었다.

오죽하였으면 이제는 열차를 타고다니며 거기에서 생활하는것이 습관이 되어 그런지 열차에 오르면 집에 온것같이 느끼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리엔에 온것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도 가슴뜨거워오르는 교시를 하시였는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인민을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고 숭고한 위민헌신의 길을 걸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넘내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만 하면 한몸이 설사 환알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그 맹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밤이나 낮이나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신다. 그이의 발자취가 가닿는 곳마다에서 솟아오르는 환한 인민의 별천지는 얼마이던가.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료리인민회관, 문수물놀이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양덕은천문화휴양지,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원,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객, 룡문은실농장, 룡문은실농장... 시간이 한호호한 흘러가는것을 안라까와하시며 인민을 위한 사색과 헌신의 노력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밤새 위계시는 곳은 저택이 아니라 집무실이고 꽃피우는 건설장, 려명이 밝아오는 조국의 거리와 산야들이다.

인민들이 포근한 보금자리들에서 단잠에 들어있는 이른새벽에도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그이의 집무실창가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불빛이 꺼지지 않고있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새날이 밝아올무렵이 되었는데 이제는 잠시라도 쉬었으면 하는 간절한 청을 드렸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가슴울리는 말씀을 하시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라 하면 하루사이언이 끝나지 저녁까지 보거나 24시까지를 넘두에 두고있다고, 그러나 자신께서는 오늘을 다다음 5시까지로 보고 사업을 한다고, 자신께서는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습관이

되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법칙으로 체질화되었다고. 경애하는 그이의 하루일과에는 휴식이라는 말자체가 없다. 말그대로 초인간적인 로고속에 저물고 바뀌어오는 불면불휴의 오늘이고 그 오늘속에 밝아오는 인민의 래일이다.

자신께서는 늘 두가지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공산주의리상향을 하루빨리 보고싶은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이라고, 잠이 정말로 령하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 인민을 위해 잠도 휴식도 다 바치시며 온 하루, 온 한달, 아니 온 한해를 위민헌신의 길에 계시는 그이의 숭고한 세계가 다 어려여있다.

주시고주시면서도 못다 주신것 끝없이 가고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길은 정녕 그같이 어더던가.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을 전쟁의 불구름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존엄과 평화,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몇달어간에만도 바람세차고 위엄 찬찬한 화신천리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면서 이 나라의 힘을 최강으로 키우시고 국가와 인민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열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세집에서 그날도 우리는 웃음과 기쁨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에도 아니 글썽 우리 리원군의 지명이 나오는데 순간 왈락 눈물이 솟아올라오는 마음사람들이 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이처럼 큰 행복을 안겨주시고 오늘도 그 행복을 전쟁의 불구름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3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함경남도 리원군해안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이 훈련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접하여 리원군 학사대리의 인민들이 터친 이 뜨거운 심장의 도로, 그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혁명활동소식과 더불어 날마다 더욱 황홀하게 전변되고 강대해지는 내 조국의 모습을 보며 기쁨과 흥분을 금치 못하는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서 울리는 격정의 목소리 그대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주시기 위해 5개년계획기간 평양시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작전을 펼쳐주시었고 보통강강안지구에 하늘의 별무리를 그대로 땅우에 펼쳐놓은것만 같은 황홀한 다락식주객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통채로 안겨주도록 하신것은 은덕을 베풀어주시었다.

지금도 1년전 그날에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준다.

뜻깊은 태양절을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승결과 체취가 어리여진 리전에 일떠선 인민의 호화주택을 준공하고보니 수령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아마도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그 들안에 예극자, 풍로자들의 행복년친 보금자리가 마련된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것이라고, 한생토록 것처럼 사랑한 인민을 따듯이 품어안으신것같아 정말 기뻐하실것이라고.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오는뜻깊은 유서깊은 저택자리에 천구슬, 만구슬 빛을 뿌리며 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경무동이아말도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일떠세워주시고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행복의 무릉도원이고 이 세상 제일 값진 만복의 재부이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살게 될 호화주택들을 돌아보시려 총총계단을 밟아오르시던 나지막한 둔덕길, 그 길은 자신께서 가장 아끼고 위하시는 인민을 손잡아 변명과 더 큰 행복의 미래로 이끌어가시는 지름길, 웃음넘치는 사랑의 길이었다.

그러시기도 주신 사랑 부족하신텐 뜻깊은 이해의 봄계절에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강동은실농장건설, 4 000여세대의 새 거리건설의 편이 발과 폭음들을 울리도록 해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이제 머머지마 화성지구의 새집들이경사로 온 나라가 또다시 들썩게 될것이다.

화성지구! 조용히 불리만 보아도 숭엄한 격정에 휩싸이는 금수산태양궁전지점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인민들의 대규모보금자리가 해마다 1만세대씩 단계별로 일떠서고있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다 합쳐서,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평생념원을 거어어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인민사랑의 손길에 의해 화성지구에 펼쳐지는 인민의 크나큰 보금자리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경무동에서, 화성지구에서, 현대적인 새거리들과 황홀한 주택들이 련속 일떠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들과 함께 사신다. 함께 계시며 나라와 인민의 존엄높은 오늘과 천만년 밝은 미래를 축복 해주신다.

\* \* 이 세상에 집이 생긴 력사는 오래다. 집과 함께 전해지는 가지가지의 일화들도 많다. 허나 요즘 동시 그 어디에도 이 땅에서 전해지는 성스러운 집에 대한 이야기처럼 감동깊은 이야기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인민,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이 함께 벌여놓은 존엄과 번영, 행복을 꽃피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따듯하고 포근하며 향기로운 그 사랑의 집, 사회주의대가정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소리가 세월을 넘어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유 금 주





# 해외동포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어

주제의 태양이 솟아오른 뜻깊은 태양절의 아침 지역의 동포들은 해외동포들을 위해 그처럼 마음씨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고귀한 헌생을 돌이켜보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찍이 10대의 어린시 나이에 이국살이의 설움이 어떤것인가를 너무도 가슴아프게 체험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 해외동포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가장 따사롭고 열렬하며 가장 자애롭고 다정한 사랑이었다.

예로부터 해외동포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뛰어나는 물방울에 비유되었고 그들의 력사는 레외없이 수난의 력사로 불리워왔다.

지난날 나서자란 고향산천은 있어도 안겨질 품이 없어 피눈물을 뿌리며 산실고 물결은 일본으로, 만주로 그리고 씨비리와 중앙아시아 등 세계 여러곳으로 흩어져간 조선사람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랴.

정든 고향을 떠나 이역방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 굶주림속에서 헤매야 했던 해외동포들이 바란것은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줄 진정한 어머니조국이었다.

이들의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건지 조국을 찾아주시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해외동포들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함께 있는 자식보다 남의 집에 없혀사는 자식때문에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해외동포들을 위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봄날의 따사로운 햇빛마냥 해외동포들의 얼어든 가슴을 녹이고 재생의 길을 밝게 비추주었다.

총련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아버지수령님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큰것이었던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낯선 이역땅의 막바지인생으로 한줄기 빛조차 그림던 해외동포들에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보내주시어 재생의 빛발을 안겨주시신분도, 해방직후 갈길 몰라 헤매이던 그들에게 력사적인 공개서한을 보내주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신분도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던 준엄한 전회의 나날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나라 혁명에 참담계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로선전환방침은 제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해준 재생의 빛발이었다.

이역방에서 고생하는 총련동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조국을 방관한 제일동포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그들을 언제나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

평양을 찾아온 세계 여러 나라 정치가들과 사회계 인사들이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을것을 고대할 때에도 이역에서 찾아온 총련동무들부터 만나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남만주에 불려주시고 방문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조국을 떠나는 동포들인데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떠나던 현지지도의 길에서 서둘러 돌아오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은 제일조선인운동사에 영원한 사랑의 전설로 수놓아져있다.

은 거례의 마음속에, 제일동포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불멸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주제83(1994)년 7월 7일, 곁쌍이는 파로로 하여 몸이 불편하

시였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총련지부 일군대회에 친히 축전을 보내주시었다.

그날의 축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더욱 강화발전할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철세위인의 축복이었다.

이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 많고많아도 총련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총련의 사랑은 다르다.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의 이 무한대한 사랑은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양분으로 되었고 그 위대한 품속에서 그들은 값높은 삶을 누려올 수 있었다.

이제 이뿐이다. 지난날 자신과 연고관계가 있던 해외동포들뿐 아니라 조국과 민족 앞에 죄를 지었던 해외동포들까지도 뜨거운 동포애로 품어안아주시고 남은 인생을 민족을 위한 애국성업에 바쳐나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품이 있었기에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며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시기자 전 영 민



## 민족의 단합과 변명을 위한 길에서 철세위인에게 매혹되어 (4)

최일천선생은 해방이 되자마자 정치활동에 참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체의 노력으로 동방문화사를 꾸려놓고 《동방신문》을 발행하였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반체정신으로 교양하는 신문인것으로 하여 미제와 반동들의 탄압을 받고 얼마 발행되지 못하였다.

선생은 1946년 9월 《신한민족당》과 《신한민주당》, 조선혁명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통합되어 신진당이 결성된 후 신진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사업하였다.

그는 당을 대표하여 민주주의독립전선,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민족자주전맹 등에 관여하면서 리운형, 홍명희, 김규식, 리극로 등과 손을 잡고 민주력량의 단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에 당대표들을 참가시키는것과 함께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미군철거와 민주주의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1950년 6월 28일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자 그는 세 아들을 의용군으로 전선에 내보내었다.

최일천선생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서울에 남아 사업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

그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땀땀하게 살았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었으나 그의 신심을 찾지 못하다보니 그의 행방을 알수가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먼길떠나 소식없는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랜 세월 최일천선생의 행방을 찾고 또 찾으시었다.

주제55(1966)년 8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출판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받아보시게 되었다.

집필자의 이름은 최형우라고 되어있었다. 내용을 신중히 잘 아는 사람이 썼다고, 그것들을 보아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쓴것 같다고 하시며 그때 최일천이라고도 부른 최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을 최형우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는 《E.C》에도 관계하고 신문사지국에서도 일한 사람인데 글재간이 있었다고 하시었다.

그후 정주에 살고있던 최일천의 누이로부터 최형우가 최일천이라는것이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찾아보았으니 동무들도 최일천을 찾아보라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그러던중 마침내 최일천선생이 1950년 11월 5일 원수들에게 포로되어 희생되었다는 가슴아픈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믿고 사랑하시던 최일천선생의 희생 소식을 듣고는 그의 투쟁공적에 대하여 회고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서울에서 발행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E.C》를 조직한것을 비롯하여 내가 중부민주주의에서 활동할 때의 투쟁자료를 잘 반영한 귀중한 원전도서이라고, 그 책을 쓴 최일천은 나의 충실한 동무였다고 하시며 기회가 있



최일천선생

을 때마다 최일천선생과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되새기셨으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선생과의 연고관계와 그의 투쟁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시었다.

민족의 아버지의 추억속에 살아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한생을 통해 지닐수 있는 영광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광이며 혁명가, 애국인사가 누릴수 있는 행복 가운데서도 가장 큰 행복이었다.

1993년 4월 21일 미국에서 살던 최일천선생의 안해가 조국으로 오게 되었다.

자신과 최일천선생과의 연고관계와 그의 공적에 대해 회고록에 서술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선생의 이해와 자식들이 미국에서 살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조국에 와서 아들들을 만나 보도록 불려주시었던것이다.

비행장에서 아들들을 만난 선생의 안해는 최일천선생에게 수여된 조국통일상 상장을 받아안고 신미리에국렬사릉으로 향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선생을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치하는것은 그의 투쟁공로로 보나 조국에 있는 아들들을

보아서도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하시며 이날 행사를 몸소 마련해주시었다.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이르니 《반일애국렬사 최일천동지》라고 씌여있는 묘비앞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화환과 제상이 놓여있었다.

다음날 선생의 가족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한결에 꼭 안아주시며 자식들이 아버지께 닮았다고 하시면서 곁에 두고도 늦게야 찾았다고 못내 아쉬워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해주시고 음식까지 친히 권하시며 이제는 자주 만나자고, 아버지를 찾아오는것처럼 아무때나 찾아오라고 은정넉친 교시를 해주시었다.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전사를 잊지 못해하시는 그의 고결한 사람과 의리의 세계에 선생의 가족들은 한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최일천선생을 잊지 못해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수록된 항일혁명투쟁자료와 함께 그 필자인 최일천선생을 출판물에 널리 소개하도록 하시였으며 그의 자식들의 생활을 친이비시정으로 보살피주시었다.

이리하여 민족주의자로서 반일애국의 길에 나섰던 최일천선생,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겨 인생의 새 출발을 할수 있었던 최일천선생은 철세의 위인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더불어 조국청사에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되었다.

하늘에 태양이 영원하듯이 민족의 태양은 은혜로운 품에 안긴 인생도 영원한것임을 최일천선생의 한생은 말해주고있다.

본시기자

## 수기 **따사로운 그 품이 있기에**

피어나는 한 떨기의 꽃송이에도, 불어오는 한 줄기의 바람결에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실려 있는 4월의 봄명절을 맞고 보니 수십년전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던 감격의 그 순간이 어찌랴든 떠올라 눈곱이 젖어든다.

그날은 내가 자본주의의일본 땅에서 그림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나는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친행하는 설맞이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설맞이모임에 참가한 우리모두를 해맑게 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바라보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일본땅에서 태어난 나는 어려서부터 나라없던 세월을 살아가며 왜한탄을 견는 할아버지가 왜놈들의 모진 학대속에 불구가 된 피눈물 나는 이야기며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정이 떠나 버려진 가가기속에 내가 허리가 굽어지도록 자라온 추어 간신히 가족을 살려온 가슴아픈 사연을 전해들으며 자랐다.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나는 10살도 채 되기 전부터 국수를 만들어 손수레에 싣고 거리에 나가 팔며 하루하루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를 도와 국수배달을 다녀야 했다.

어느날 국수배달을 하던 나는 길가에서 왜놈새끼들을 만났다. 어린 국수배달 부라고 놀려대는데 격분한 나는 들고가던 국수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정말이지 해가 비쳐도 따사로운을 몰랐고 봄꽃이 만

발하여도 환희로움을 느낄수 없었던 비참한 기억살이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온갖 천대와 학대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던 나에게도 믿고할 파사로운 품이 있다는것을 나는 아버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총련일군이었던 아버지는 자주 자식들을 불리얹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께서는 공화국에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도 마음껏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데 대해 들려주곤 하였었다. 그럴 때면 나의 마음은 철세위인이 계시는 평양으로 끌려가 달리었다.

사회주의조국에서의 귀족의 배길은 이역방에서 비참한 생을 이어온 나에게 새 삶을 안겨준 길이었다. 바쁜 총련사업때문에 가족과 같이 귀국할수 없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떠나는 나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 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을 조국에 가서 꼭꼭히 알게 될것이다.》

그 말의 참뜻을 나는 조국땅에 발을 내딛는 첫 순간부터 깨닫게 되었다.

마음껏 배우고싶었던 나의 꿈은 조국에서 활짝 꽃피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으로 김책공업대학(당시)에 입학하던 날 나는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채 교역에 시달린 아버지와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다. 그후 조국에 돌아온 아버지는 의젓한 대학생이 된 아들의 모습앞에서 감격의 눈물만 흘리었다.

졸업후 대학연구사가 된 나는 실장, 강좌장, 학부장을 거쳐 정보과학기술대학

학장(당시), 전자도서관 관장으로 자랑스러운 인생행로를 걸어왔다.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나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것은 조국의 품을 찾아온 동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모두 힘을 합쳐 사회주의조국을 훌륭히 건설해나가자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였다.

그 믿음과 사랑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할 굳은 맹세를 안고 나는 대학졸업후 50여년간 수많은 학과목들을 개척하고 수십권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나라의 정보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40대, 50대에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자가 받은 이 값높은 칭호마다에는 평범한 교육자를 위해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 철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이 뜨겁게 어려였다.

그 날날 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여러 차례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몇몇전 나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어려웠던 미래 과학자거리의 살림집에서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정어린 일흔번째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우리 가정이 받아안은 행복은 나날이 커만 가고있다. 김정원수대학을 졸업한 나의 동생도 교수, 박사로 자랐고 일본에서 태어나 조국의 품에 안긴 안해도, 두 아들과 두 며느리도 김책공업총합대학을 졸업하고 과학기술로 발돋움하였다.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없듯이 인간의 삶도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진정한 조국이 없으면 꽃피울수 없다는것을 나는 한생의 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걸감하였다. 나는 온 세상에 소러높이 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고. 김책공업총합대학 지도교원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류순결



## 이 세상 더없이 훌륭한 인민적정치가

## 세계가 공인한 불세출의 위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되새겨볼 때면 그이앞에서 늘 감탄을 금치 못해하던 호志明주석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주제 53(1964)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호志明주석의 거두되는 요청에 의하여 도하시 웰남을 방문하시었다. 호志明주석은 나이가 많았지만 무척 명랑하고 활달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앞에서는 꼭 친근한 선생을 대하는 학생같았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만날 때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을 질문하곤 하였는데 그 태도는 정말 진지하였다. 그가 특히 관심하는것은 조선에서 실시되는 사회주의시책들에 대한 것이였고 그중에서도 무로교육을 제일 부러워하였다.

비행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에게 호志明주석은 이렇게 말씀올리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그것에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번에 김일성동지에게서 그에 대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이 대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호志明주석과 회담하실 때 그대로 이어졌다. 그때의 대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호志明: 《나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김일성동지도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선 제가 김일성동지보다 더 열렬할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그야 물론입니다. 여기서는 온 나라 어린이들이 호志明주석을 호할아버지, 호할아버지 하면서 부르는데 그것이 더 우연하지 않습니다.》

호志明: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일성동지, 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아이들한테서 온

을 받으며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어디 호할아버지제만이 있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리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 《아닙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이들에게 무로교육을 실시하고계시는데 나는 아무리 예를 써도 그렇게 할수 없으니 야단이 아닙니까. 누가 무로교육을 하라고 자금을 줍니까? 김일성동지는 그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고있습니까?》

호志明: 《누가 우리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생활이 풍족해서 무로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국을 해방한 다음 우리는 나리의 중공업들을 국유화하고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리우에서 허리를 풀러내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는 말할수 없지만 생활에 대한 관심걱정을 모르고 모두가 다 고르게 살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중국의 요일금이 선정을 편 전설적인물로 력사에 알려졌는데 김일성동지께서 피시는 정치엔 미할 여지도 못됩니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이 세상 더없이 훌륭한 인민적정치가입니다. 본시기자 김진혁

호志明: 《하지만 인민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재부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올바른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시였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말씀이 너무 과합니다. 나는 단 한번도 인민을 떠나서 자기자신을 생각해보는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일할뿐입니다.》

호志明: 《중국의 요일금이 선정을 편 전설적인물로 력사에 알려졌는데 김일성동지께서 피시는 정치엔 미할 여지도 못됩니다.》



# 윤석열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를 폭로한다

## 검찰파쇼광공에 얼어붙은 민주민권의 동태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는 회개의 검찰과 조속대(정권)의 반인륜적, 반인민적 악정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종의 대중적투쟁이 세계적 벌어지고있다. 《민생과란 못살겠다, 윤석열 피친하라!》, 《정치강제, 검찰독재 윤석열타도!》, 《우리가 주인이다, 조총비 이긴다》, 《(국민의 힘) 해체하라!》의 함성이 온 남조선땅을 진감하고있다. 이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라는 기만적인 간판위에 걸린 1년도 못되어 남조선을 참혹한 인

## 조국 통일 연구원

권해하지대,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회세의 검찰파쇼독재 통치로 사상초유의 《검찰공화국》을 조작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와 자유마저 강권리 유린하는 괴뢰패당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실상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 구원

이치모터스주가조직)의 폭사건과 《통화 폭음》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와 《정당동술자리의혹》(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비롯한 심복들을 모아놓고 새벽까지 술판을 벌려놓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더타임》에 대한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오죽하면 역적패당의 언론탄압행동에 분노한 《전국언론로동조합》을 포함한 8개의 남조선언론단체들이 《윤석열정부가 저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개인 복수에 매달리고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둑질이다.》, 《당국의 언론탄압을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로 보고 경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해나섰는가.

## 맥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고굴리》, 《고물기》, 《고환물》의 《3중고》의 시달림 속에 가족이나 령락된 주민들의 생활현상은 더욱더 악화되고있다. 올해 1월에만도 불가상승률로 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기로금은 29.5%, 도시가스료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 폭등하였으며 이러한 기록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라고 한다. 《민중의 소리》 2023년 2월 2일) 불가와 집값상승으로 엄청난 폭늘어난 채무가 그그시 먹고사는것도 힘든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가뭄숨을 몰아쉬게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전체 가정세대의 70%이상 이 세대의 증가로 로임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어 무한정 빚을 지고있는 형편이다. 지금 남조선의 한세대당 빚짓 액수는 평균 6만 6 000여US\$에 달하며 그 채무중وع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보아도 1조 5 500억US\$로서 《국내총생산액》에 비한 채무비율이 95%에 달하고 채무 증가속도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 3~5배정도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다. 《MBC》 2023년 2월 27일) 특히 약성전염병사태기간 은행대출에 의존해온 《저소득계층》과 《경제사정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채무지불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20~30대 청년들은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예 삶자체를 포기하고있다. 생활상난을 이겨낼수 없어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속에서 자기뿐 아니라 일가족모두의 자살을 선택하는 현상이 일상사로 되고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자살자수는 도합 1만 3 350여명이며 그중에서 9월부터 24살사이 청소년들이 극단적선택을 한 비율은 다른 나이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크다. 《MBC》 2023년 1월 2일) 실례가 아니라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성행하는 자살행위의 근원을 뿌리뽑을 대신 허황한 거짓없는 《자살예방본 계획》이나 발표하면서 저들에게로 쏠리는 민심의 비탄의 눈초리를 피해보려고 하고있다.

## 숨 막히는 참혹한 민생지옥

포탄 말로 어제날 유전자들을 속여넘긴 윤석열역적패당이 지금은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는다면서 《부동산규제》를 풀이 놓아 집값상승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역적패당의 부동산규제완화조치와 다주택자대출규제해제조치로 하여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일반평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고 생방살이를 하는 사람의 수는 무려 94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CBS》 2022년 11월 15일)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올해 《예산안》 가운데서 《공공임대주택예산》을 30억US\$이상 삭감했고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예산은 《공제항목》에 넣어 아예 없애버렸다. 월대다수의 주민들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단칸짜 집조차 가질수 없어 가족이 뿔뿔이 갈라져 사는 세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청년들속에서 결혼을 포기하는것이 사회적증조로 되고있다. 이가 반면에 윤석열 《정권》의 장, 차관들은 부동산규제완화조치로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투기행위를 일삼으며 돈주머니를 크게 부풀리고있다.

2022년 10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폭로한 자료에 의하면 윤석열 《정권》의 장관, 차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자산만 해도 평균 21억 3 000만원에 달하고 그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은 무려 53억 1 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두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투기행위를 하고있었다. 장관, 차관들은 수십명에 달한다.

여기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세계적침체의 여파!》, 《피할수 없는 경기악화!》 하면서 제법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해주자 《호기》를 만난 재벌들은 저마다 한전자재 소비품가격을 대폭 올려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이제라도 윤석열역적패당을 폐기하고 조속한 정권교체를 위하여 어떤 윤석열 《정권》의 장관, 차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자산만 해도 평균 21억 3 000만원에 달하고 그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은 무려 53억 1 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두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투기행위를 하고있었다. 장관, 차관들은 수십명에 달한다.

여기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세계적침체의 여파!》, 《피할수 없는 경기악화!》 하면서 제법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해주자 《호기》를 만난 재벌들은 저마다 한전자재 소비품가격을 대폭 올려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

## 패륜패덕이 살판치는 범죄천국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에서 사상초유의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면서 입이 닳도록 떠벌여댄것이 바로 《범죄》와 《원칙》이다.

하지만 그 《범죄》와 《원칙》이라는 것은 역적패당이 저들의 반동적투쟁기반을 제기 위한 기만적주호에 불과했다.

제기인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되어있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도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선천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있다.

무지무능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자리에 올라온이후 경제난, 생활난이 극심해지면서 남조선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역대 괴뢰부패정권시기를 통가하는 최악의 범죄시적으로 전락되어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로동정책》이 로동자들의 삶을 막아치고 차단하고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을 총족시켜주는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역적패당의 악정을 등대고 재벌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헤치고있으며 이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휩쓸고있다.

역적패당의 악정을 등대고 재벌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헤치고있으며 이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휩쓸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로동정책》이 로동자들의 삶을 막아치고 차단하고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을 총족시켜주는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역적패당의 악정을 등대고 재벌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헤치고있으며 이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휩쓸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로동정책》이 로동자들의 삶을 막아치고 차단하고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을 총족시켜주는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역적패당의 악정을 등대고 재벌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헤치고있으며 이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휩쓸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로동정책》이 로동자들의 삶을 막아치고 차단하고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을 총족시켜주는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역적패당의 악정을 등대고 재벌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헤치고있으며 이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휩쓸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로동정책》이 로동자들의 삶을 막아치고 차단하고 극소수 재벌들의 리익만을 총족시켜주는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실업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역적패당의 악정을 등대고 재벌들은 로동자들을 무리로 헤치고있으며 이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휩쓸고있다.

## 다. 《민중의 소리》 2022년 11월 20일, 《뉴스1》 2022년 11월 30일)

정치적반대를 향한 역적패당의 독기서린 칼부림은 그 악랄성과 집요성, 무자비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검찰파쇼독재의 대표적실례로 되고있다.

피뢰패당은 집권직후부터 우리 공화국과 전민 《정권》을 억지로 련결시키기 위한 사건들을 련이어 터뜨리면서 이른바 《사정정국》을 조성하여 괴뢰정권을 일대 혼란에 몰아넣었다.

검찰독재 《정권》의 비렬성과 포악성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더욱 드러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지난 《대통령》선거경에서 제논과 치렬하게 대결하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것을 통해 2024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을 누르고 《국회》의 파반주의석을 차지할뿐 아니라 나아가 재집권야망을 실현할 흡심물에 검찰과 경찰, 《정보원》 등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달려들었다.

이로 하여 《대장동개발특혜사건》과 《성남 FC 후원금사건》의 연루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5명의 관계자들이 검찰의 집중수사를 견딜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이 자살사태가 빚어졌다. 《뉴스1》 2022년 12월 22일, 《뉴스스》 2023년 3월 12일)

그런데도 역적패당은 더욱 악을 쓰며 검찰수사의 강도를 높이면 끝이 괴뢰통치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명정까지 청구하게 하였다. 《연합뉴스》 2023년 2월 16일)

이를 두고 남조선의 야당과 사회각계에서는 《이전 정권관계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명백한 정치적적수제거늬름》, 《유신독재정권이 물려간 자리에 검사독재정권이 다시 포아리를 틀었다.》, 《정치자나 아니라 정치적대결을 일삼고 경쟁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난과 개탄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프레시안》 2023년 2월 20일)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도 윤석열패당의 극악한 정치체제가 란무하는 《검찰공화국》을 가리켜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거나 죽이는 세계유일의 《정치적사냥정권》,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탄압된 경쟁자를 제거하는 《비민주주의적정권》으로 혹평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 남조선은 언론자유와 동태,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시키는데도 혈안이 되었다.

불의와 허위, 악을 타매하여 진실을 말하는것은 그 누구도 지참할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러나 눈은 있어도 소경이 되어야 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며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주 남조선언론의 참혹한 실상이다. 역적패당은 집권후 이전 《정권》시기에 일명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강요했고 심지어 그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면서 방송장악기도 공공연히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공영방송인 《KBS》, 《MBC》가 이전 《정권》하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하면서 방송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감사까지 강행해나섰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방송장악행동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사 IN》 2022년 7월 28일, 《연합뉴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한 언론탄압은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행각을 앞두고 극대고 달하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역적패당은 《MBC》 방송사가 미국항공당시 바이든과 미국회협들을 상대로 유한 제논의 망언을 게재시킨 저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그해 11월에 있는 동남아시아행각에 해당 방송사의 취재진이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AP》,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외신들까지 《윤석열정부가 담지않은 근거로 MBC취재기자를 전용기탑승자대상에서 제외해 언론단체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적대적인관편의 결정판이라고 일찌히 비난해나서자 역적패당은 《대통령실》을 배제위 《MBC가 자막조작, 위변 및 편파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것이었다.》고 뇌까렸다. 《경향신문》 2022년 11월 11일)

역적패당은 자기 녀편들의 《도

## 다. 《민중의 소리》 2022년 11월 20일, 《뉴스1》 2022년 11월 30일)

정치적반대를 향한 역적패당의 독기서린 칼부림은 그 악랄성과 집요성, 무자비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검찰파쇼독재의 대표적실례로 되고있다.

피뢰패당은 집권직후부터 우리 공화국과 전민 《정권》을 억지로 련결시키기 위한 사건들을 련이어 터뜨리면서 이른바 《사정정국》을 조성하여 괴뢰정권을 일대 혼란에 몰아넣었다.

검찰독재 《정권》의 비렬성과 포악성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더욱 드러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지난 《대통령》선거경에서 제논과 치렬하게 대결하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것을 통해 2024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을 누르고 《국회》의 파반주의석을 차지할뿐 아니라 나아가 재집권야망을 실현할 흡심물에 검찰과 경찰, 《정보원》 등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달려들었다.

이로 하여 《대장동개발특혜사건》과 《성남 FC 후원금사건》의 연루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5명의 관계자들이 검찰의 집중수사를 견딜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이 자살사태가 빚어졌다. 《뉴스1》 2022년 12월 22일, 《뉴스스》 2023년 3월 12일)

그런데도 역적패당은 더욱 악을 쓰며 검찰수사의 강도를 높이면 끝이 괴뢰통치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명정까지 청구하게 하였다. 《연합뉴스》 2023년 2월 16일)

이를 두고 남조선의 야당과 사회각계에서는 《이전 정권관계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명백한 정치적적수제거늬름》, 《유신독재정권이 물려간 자리에 검사독재정권이 다시 포아리를 틀었다.》, 《정치자나 아니라 정치적대결을 일삼고 경쟁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난과 개탄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프레시안》 2023년 2월 20일)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도 윤석열패당의 극악한 정치체제가 란무하는 《검찰공화국》을 가리켜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거나 죽이는 세계유일의 《정치적사냥정권》,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탄압된 경쟁자를 제거하는 《비민주주의적정권》으로 혹평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 남조선은 언론자유와 동태,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시키는데도 혈안이 되었다.

불의와 허위, 악을 타매하여 진실을 말하는것은 그 누구도 지참할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러나 눈은 있어도 소경이 되어야 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며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주 남조선언론의 참혹한 실상이다. 역적패당은 집권후 이전 《정권》시기에 일명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강요했고 심지어 그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면서 방송장악기도 공공연히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공영방송인 《KBS》, 《MBC》가 이전 《정권》하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하면서 방송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감사까지 강행해나섰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방송장악행동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사 IN》 2022년 7월 28일, 《연합뉴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한 언론탄압은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행각을 앞두고 극대고 달하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역적패당은 《MBC》 방송사가 미국항공당시 바이든과 미국회협들을 상대로 유한 제논의 망언을 게재시킨 저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그해 11월에 있는 동남아시아행각에 해당 방송사의 취재진이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AP》,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외신들까지 《윤석열정부가 담지않은 근거로 MBC취재기자를 전용기탑승자대상에서 제외해 언론단체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적대적인관편의 결정판이라고 일찌히 비난해나서자 역적패당은 《대통령실》을 배제위 《MBC가 자막조작, 위변 및 편파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것이었다.》고 뇌까렸다. 《경향신문》 2022년 11월 11일)

역적패당은 자기 녀편들의 《도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 남조선은 언론자유와 동태,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시키는데도 혈안이 되었다.

불의와 허위, 악을 타매하여 진실을 말하는것은 그 누구도 지참할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 다. 《민중의 소리》 2022년 11월 20일, 《뉴스1》 2022년 11월 30일)

정치적반대를 향한 역적패당의 독기서린 칼부림은 그 악랄성과 집요성, 무자비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검찰파쇼독재의 대표적실례로 되고있다.

피뢰패당은 집권직후부터 우리 공화국과 전민 《정권》을 억지로 련결시키기 위한 사건들을 련이어 터뜨리면서 이른바 《사정정국》을 조성하여 괴뢰정권을 일대 혼란에 몰아넣었다.

검찰독재 《정권》의 비렬성과 포악성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더욱 드러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지난 《대통령》선거경에서 제논과 치렬하게 대결하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것을 통해 2024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을 누르고 《국회》의 파반주의석을 차지할뿐 아니라 나아가 재집권야망을 실현할 흡심물에 검찰과 경찰, 《정보원》 등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달려들었다.

이로 하여 《대장동개발특혜사건》과 《성남 FC 후원금사건》의 연루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5명의 관계자들이 검찰의 집중수사를 견딜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이 자살사태가 빚어졌다. 《뉴스1》 2022년 12월 22일, 《뉴스스》 2023년 3월 12일)

그런데도 역적패당은 더욱 악을 쓰며 검찰수사의 강도를 높이면 끝이 괴뢰통치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명정까지 청구하게 하였다. 《연합뉴스》 2023년 2월 16일)

이를 두고 남조선의 야당과 사회각계에서는 《이전 정권관계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명백한 정치적적수제거늬름》, 《유신독재정권이 물려간 자리에 검사독재정권이 다시 포아리를 틀었다.》, 《정치자나 아니라 정치적대결을 일삼고 경쟁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난과 개탄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프레시안》 2023년 2월 20일)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도 윤석열패당의 극악한 정치체제가 란무하는 《검찰공화국》을 가리켜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거나 죽이는 세계유일의 《정치적사냥정권》,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탄압된 경쟁자를 제거하는 《비민주주의적정권》으로 혹평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 남조선은 언론자유와 동태,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시키는데도 혈안이 되었다.

불의와 허위, 악을 타매하여 진실을 말하는것은 그 누구도 지참할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러나 눈은 있어도 소경이 되어야 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며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주 남조선언론의 참혹한 실상이다. 역적패당은 집권후 이전 《정권》시기에 일명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강요했고 심지어 그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면서 방송장악기도 공공연히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공영방송인 《KBS》, 《MBC》가 이전 《정권》하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하면서 방송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감사까지 강행해나섰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방송장악행동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사 IN》 2022년 7월 28일, 《연합뉴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한 언론탄압은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행각을 앞두고 극대고 달하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역적패당은 《MBC》 방송사가 미국항공당시 바이든과 미국회협들을 상대로 유한 제논의 망언을 게재시킨 저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그해 11월에 있는 동남아시아행각에 해당 방송사의 취재진이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AP》,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외신들까지 《윤석열정부가 담지않은 근거로 MBC취재기자를 전용기탑승자대상에서 제외해 언론단체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적대적인관편의 결정판이라고 일찌히 비난해나서자 역적패당은 《대통령실》을 배제위 《MBC가 자막조작, 위변 및 편파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것이었다.》고 뇌까렸다. 《경향신문》 2022년 11월 11일)

역적패당은 자기 녀편들의 《도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 남조선은 언론자유와 동태,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시키는데도 혈안이 되었다.

불의와 허위, 악을 타매하여 진실을 말하는것은 그 누구도 지참할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러나 눈은 있어도 소경이 되어야 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며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주 남조선언론의 참혹한 실상이다. 역적패당은 집권후 이전 《정권》시기에 일명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강요했고 심지어 그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면서 방송장악기도 공공연히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공영방송인 《KBS》, 《MBC》가 이전 《정권》하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하면서 방송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감사까지 강행해나섰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방송장악행동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사 IN》 2022년 7월 28일, 《연합뉴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한 언론탄압은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행각을 앞두고 극대고 달하였다.

## 다. 《민중의 소리》 2022년 11월 20일, 《뉴스1》 2022년 11월 30일)

정치적반대를 향한 역적패당의 독기서린 칼부림은 그 악랄성과 집요성, 무자비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검찰파쇼독재의 대표적실례로 되고있다.

피뢰패당은 집권직후부터 우리 공화국과 전민 《정권》을 억지로 련결시키기 위한 사건들을 련이어 터뜨리면서 이른바 《사정정국》을 조성하여 괴뢰정권을 일대 혼란에 몰아넣었다.

검찰독재 《정권》의 비렬성과 포악성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에서 더욱 드러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지난 《대통령》선거경에서 제논과 치렬하게 대결하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것을 통해 2024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을 누르고 《국회》의 파반주의석을 차지할뿐 아니라 나아가 재집권야망을 실현할 흡심물에 검찰과 경찰, 《정보원》 등을 총동원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달려들었다.

이로 하여 《대장동개발특혜사건》과 《성남 FC 후원금사건》의 연루자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5명의 관계자들이 검찰의 집중수사를 견딜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이 자살사태가 빚어졌다. 《뉴스1》 2022년 12월 22일, 《뉴스스》 2023년 3월 12일)

그런데도 역적패당은 더욱 악을 쓰며 검찰수사의 강도를 높이면 끝이 괴뢰통치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명정까지 청구하게 하였다. 《연합뉴스》 2023년 2월 16일)

이를 두고 남조선의 야당과 사회각계에서는 《이전 정권관계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명백한 정치적적수제거늬름》, 《유신독재정권이 물려간 자리에 검사독재정권이 다시 포아리를 틀었다.》, 《정치자나 아니라 정치적대결을 일삼고 경쟁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다.》는 비난과 개탄이 거세게 터져나왔다. 《프레시안》 2023년 2월 20일)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도 윤석열패당의 극악한 정치체제가 란무하는 《검찰공화국》을 가리켜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처넣거나 죽이는 세계유일의 《정치적사냥정권》,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탄압된 경쟁자를 제거하는 《비민주주의적정권》으로 혹평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 남조선은 언론자유와 동태,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시키는데도 혈안이 되었다.

불의와 허위, 악을 타매하여 진실을 말하는것은 그 누구도 지참할수 없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편적인 인권이다.

그러나 눈은 있어도 소경이 되어야 하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며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주 남조선언론의 참혹한 실상이다. 역적패당은 집권후 이전 《정권》시기에 일명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강요했고 심지어 그들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키면서 방송장악기도 공공연히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공영방송인 《KBS》, 《MBC》가 이전 《정권》하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하면서 방송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감사까지 강행해나섰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방송장악행동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사 IN》 2022년 7월 28일, 《연합뉴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한 언론탄압은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행각을 앞두고 극대고 달하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역적패당은 《MBC》 방송사가 미국항공당시 바이든과 미국회협들을 상대로 유한 제논의 망언을 게재시킨 저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그해 11월에 있는 동남아시아행각에 해당 방송사의 취재진이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AP》,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외신들까지 《윤석열정부가 담지않은 근거로 MBC취재기자를 전용기탑승자대상에서 제외해 언론단체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적대적인관편의 결정판이라고 일찌히 비난해나서자 역적패당은 《대통령실》을 배제위 《MBC가 자막조작, 위변 및 편파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것이었다.》고 뇌까렸다. 《경향신문》 2022년 11월 11일)

역적패당은 자기 녀편들의 《도



# 4월의 봄명절에 펼쳐진 꽃바다



## 발전하는 주체적산업미술의 자랑찬 면모

### \*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진행 \*

은 나라가 쉼없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고조시켜나가고있는 벽한 시기에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

고있다. 《산업미술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척후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주신 190여점

의 대표적인 산업미술도안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산업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54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실례품, 모형 등이 전시되었다.

특히 무인프락토도안은 세계적인 발전추세로 되고있는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농산작업의 무인화를 실현하고 전기자동차를 동력으로 리용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여러가지 일을 손색없이 해체할수 있는 다기능화 된 프락토도안과 종합수확기도안은 벼바다 설비에 필요한 황금가을을 안아보게 한다. 전시회에는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측면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한 도안들도 출품되었다. 고려항공려객기, 유람직승기, 대형려객선, 미래형 승용차, 소형구급차를 비롯한 교통용수수단도안들이 그

리하다.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경지에 이른 새형의 건설기계도안들과 착상이 기발한 다기능건설기계모형은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산업미술창작가들의 드넓은 열의를 잘 보여주고있다.

특색있는 식물장식도안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환경장식도안들과 그리고 각종 일용제품들과 식료가공품, 가정용품, 옷, 신발, 광고도안 등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전시된 산업미술도안들에는 만화적수법과 컴퓨터에 의한 3차원, 4차원화상처리로 대상의 립체감과 세부질감을 생동하게 반영한 회화적수법, 사진합성수법, 환상수법, 상징수법 등이 널리 활용되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적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는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참관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련일 성황을 이루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 가요해설

## 《만경대의 노래》

공화국의 관록있는 작곡가인 조병출이 작사하고 김옥성이 작곡한 가요 《만경대의 노래》는 1962년에 창작되었다. 가요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만경대로 달리는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을 서정적으로 노래하고있다.

노래의 가사는 만경대의 아름다운 풍경과 불멸의 혁명사적을 간결한 시적화적으로 펼쳐보이면서 온 나라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이 오늘날 이 땅위에 행복의 락원으로 꽃피었음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이면서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하

려는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다. 한개의 대악절로 구성되어있는 가요의 곡조는 처음의 주제선율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면서 시종일관 부드럽고 따뜻한 정서로 흐른다. 또한 매개 절마다 마지막부분의 선율을 다시 상승반복함으로써 형상적폭은 더욱 넓어지고 주제사상적내용도 승화되고있다.

선율은 일관하게 흐르는 무곡풍의 부드러운 물결과 조신민요의 독특한 대구수법을 하나의 악구(4개 소절)를 단위로 새롭게 적용하여 악곡

의 사상정서적내용과 감정을 더욱 돋구어준다. 가요는 높은 시적사상과 아름답고 소박한 음악형상의 조화로운 통일로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우면서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뜨겁게 불려일으키고있다.

대동강 푸른 물도 안기여 들고  
날아가던 새들도 노래드리는  
만경대 아름다운 산기슭에는  
혁명의 유서깊은 집이 있네  
만경대 아름다운 산기슭에는  
혁명의 유서깊은 집이 있네  
...

본사기자

### 문학의 의미

## 감정, 정서

두 단어의 공통되는 점은 다같이 심리적현상이라는것이다. 개별적인 뜻을 놓고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은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심리적현상이다.

예: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리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서는 두가지 뜻을 나타낸다.

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여러가지 감정이나 느낌이다.

예: 정서가 풍부하다. ②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 형태이다. 인간이 자신의 생활상요구와 자주적지향이 충족되고 안되는에 따라 가지게 되는 쾌감과 불쾌감,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등은 정서의 표현형식이고 표현상태이다.

예: 감정과 정서  
본사기자

## 봄철에 질병을 막으려면

-간장과 담낭을 보호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내장을 세척해야 한다. 봄철에는 간장, 담낭과 관련한 만성질환이 도질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을 필수로 멀리해야 하며 식물성기름과 같은 열매를 많이 먹어야 한다. 또한 내장을 세척하는것이 중요하며 2주일정도 당과류를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죽을 많이 먹어야 한다. 아침과 저녁식사와 푸추 등을 넣고 쑨 죽을 먹으면 건강에 리롭다. -공나물을 많이 먹으며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 비타민과 광물질, 아미노산 등 영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콩나물을 많이 먹으며 닭알, 콩음식 등으로 단백질은 충분히 보충해야 면역을 높일수 있다. 이밖에 부루나 시금치 등 녹색채소도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기지개를 자주 해야 한다. 봄철에는 기지개를 자주 하여 추운 겨울동안 위축되었

던 신체를 늘구는것이 좋다. -옷을 적당히 껴입어야 한다. 겨울을 나면서 면적이 떨어진 상태에서 옷차림을 지내가면 하면 땀을 받을수 있다. 이런 경우 피질이 수축되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아 한 내장을 세척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옷을 적당히 껴입되 체질이 약한 사람들은 잔등보온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외운동은 장려해야 한다. 봄철에는 공기가 맑고 환경이 좋기때문에 사람들이 건강감을 푸는데 유리하다. 특히 이 시기에 지구의 진동이 뇌와 거의 일치하므로 대뇌를 안정시키는에 일정한 작용을 한다. -고려약을 써서 인체에 축적된 독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실제로 민들레는 간보호에 좋고 감초는 소화를 돕는다. 또한 박하와 장미는 피부병과 교염치료에 효과적이다.

본사기자



### 사화

## 등산놀이 (2)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풍물군 젊은이들이 벨것은 메고 들것은 들고 불것은 불면서 정자나무아래 모여서 장과 북을 울리면서 한바탕 기세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절저에서 처녀총각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쓸어나왔다.

최서방네 집 보배와 장쇠도 덩벼치며 대문간으로 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부모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원래 말수 적은 최서방은 《오나, 조심히들 다녀오너라.》 하고 한마디로 그치려다가 곱이 약한 장쇠가 마음에 걸려 퇴마루까지 나와서 한마디 하였다.

나서야 한다. 무슨 일에서나 남을 위해 제 한몸을 바칠줄 알아야 너도 사람대접을 받게 된다. 《예, 알겠어요.》 어머니 리씨도 살짝밖으로 나서려는 보배에게 신칙을 하였다. 《행동거지에 주의하거라. 계집애가 남의 말밖에 오르지 시집을 바루 못간다. 들었느냐?》

《알겠어요. 백번도 더 들은 말을 또...》 《이년아, 백번이 아니라 천번이라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호호... 알겠어요.》 보배는 췌대에서 날아내리는 것뿔 돌기 시작한 압착처럼 팽창된 넓은 세상으로 가서 나가고싶은듯 살짝밖으로 나는듯이 달려나갔다. 이윽고 정자나무아래 모두가 모이자 젊은이들은 풍물을 앞세우고 끼리끼리 메를 지어 길을 떠났다. 일행의 음식파워들을 모아 큰 고려쪽에 넣어 끓여진 장쇠때 지계군들이 맨 나중에서 따라섰다.

긴 행렬이 떠돌아대면서 남쪽을 향해 길을 다그쳐가는데 걸음걸음이 웃음으로 자국자국이 툭질이었다. 호들갑스러운 새나소리가 흥겨운 노래가락을 자지러지게 굴러넘기면서 흥취를 돋구면 장교를 맨 젊은이들과 짐을 든 젊은이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장고제와 징방망이를 멋스레 휘둘러대었다. 남문(마성의 고남문)을 나서서 한 시오리쯤 이렇게 걸어가니 진봉산정력에 자리잡은 도선암과 장자공으로 향하는 산길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파과과랑 새음이 트고 꽃향기가 싱그러운 산길에서 등산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처녀들은 깡깡때며 쏘뜨린 구슬알처럼 사방으로 흩어져서 꽃도 따고 산나물도 뜯었다. 보배는 꽃지짐을 부치는새 쓸진달래꽃잎을 송이송이 상할새라 조심조심히 따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다. 아버지의 분부를 명심하고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나선 장쇠는 이마에 내뿜는 땀방울을 훔치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다.

봄철의 짧은 해는 어느덧 하늘높이 떠올라 점심때를 가리고있었다. 장쇠는 알맞은 곳에 자리를 잡고 음식과 리씩을 내려놓았다. 《자, 모두들 다리힘을 안하했어?》 곁에 있던 젊은이가 곁곁 웃으며 대답하였다. 《허허... 네가 짐을 지고 오느라 출출한 모양이구나!》 《흥, 해가 중천에 걸렸는데 형님은 배고픈줄도 모르



니 봄바람에 취했소, 다홍치마에 취했소?》 《너석두... 말하는 꼴을 좀보지. 꽃향기나 취하겠지 다홍치마에두 취한다드냐?》 《흥, 진짜 취하는건 다홍치마랍니다.》 《하하하... 호호호...》 온 산등성이에 웃음소나기가 쏟아졌다.

《에라, 모르겠다. 얌어진 길에 쉬어간다니 우리도 마른 목이나 추기고 가세나. 마들 이리로 오게!》 이리하여 온 동네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이고지고은 음식들을 버려놓기 시작하였다. 남정네들이 모여앉아 막걸리병을 기울이는 동안에 녀인네들은 사정없이 주어다 지집판을 걸어놓고 불을 지펴 꽃지짐을 부치었다. 이 꽃지짐이야말로 오늘 등

산놀이의 절정을 장식하는 음식이고 오늘을 놓치면 아무때 아무곳에서나 맛볼수 없는 봄철특산음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음식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민중생활의 향기이기도 했다. 꽃지짐에는 제 고장의 아름다운 풍속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뜨거운

애정이 어려있으며 음식 한 가지라도 더 맛있고 보기 좋게 만들어 내놓으려는 이고장 녀인들의 알뜰한 솜씨와 가룩한 마음씨가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녀인들은 서로가 남들보다 더 맛있고 모양있게 만들려고 원심을 쓴다. 누가 지진 지짐이 꽃잎색같이 고운가, 꽃잎이 반듯한가, 맛은 어떤가 서로서로 살피었다. 백미지짐, 밀지짐, 메밀지짐... 지짐마다 제 나름의 맛이 있고 제 나름의 모양을 갖추고있으니 어느것이 낫고 웃화하고 단마디로 말할수가 없었다.

한창 꽃지짐 부치는 기쁨냄새가 풍겨나를 때 한 처녀가 모두가 들게 소리를 쳤다. 《뽀뽀뽀! 보배가 부친 꽃지짐이 제일이다! 모두들 맛보세요.》 처녀가 솜씨빠르게 꽃지짐을 접시에 담아두고 여기저기로 내들었다. 김이 문문 나는 지짐뜨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나드는새 꽃지짐과 함께 웃음과 통담이 오가고 남정네들이 모여앉은쪽에서는 걸쭉한 우스개소리로 들려온다. 《꽃지짐이 이렇게 좋은걸 보니 보배가 올해는 시집을 갈라가는가보다.》 《애개개... 난 몰라!》 《하하하...》

뒤이어 여기저기서 건드려진 노래소리가 울리더니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다.